

# 진단기준 바꿨더니 中 코로나19 환자 1만5천명 ↑

# 日 크루즈선 코로나19 감염 44명 추가

218명으로 늘어...일본 확진자 총 247명

사례정의·진단지침 개정...정부, 폭증으로 보건 어려워  
기준 기준으로 통계 재분류하면 약 1500명 정도 추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하루 새 1만5000명 늘어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진단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변동이라며, 폭증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13일 "중국 내 사례정의와 진단지침이 개정되면서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기준에 따라 후베이성 지역의 경우 폐렴 소견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오늘 후베이성에서 추가된 1만5000명 중 1만3000명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증가한 것"이라며 "기준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하면 약 1500명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2000명 정도 증가했던 중전 기준을 따르면 아직도 그 추세가 아주 급증했다. 폭발했다고 보다가 될 정도의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폭넓게 환자를 진단하고 관리하도록 지침

이 바뀐 결과가 통계로 나타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이날까지 중국에서 두 달여 간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는 각각 1300명과 5만90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후베이성에서는 하루새 새 확진자가 1만4840명, 사망자가 242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확진 범위에 감염이 90% 이상 확실한 임상 진단을 받은 1만3332명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중국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통계 수치와 현실에서 체감하는 환자 수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 통계'에 가깝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본부장은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공격적인 조치를 살펴보면 정보 공유를 통해 어떻게 보다 협력을 강화해 나갈지에 초점을 뒀어 할 때"라며 "정부는 WHO(세계보건기구)와 당국 간 협력을 통해서 이 질환의 조속한 퇴치를 위해서 공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포함해 중국 전체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지역별 분포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은 선부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 요코하마(横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일본 후생노동성이 밝혔다.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문제의 크루즈선에선 지금까지 218명의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발생했다. 크루즈선 감염자를 포함해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총 247명이다. 교토항선에 따르면 이날 감염이 확인된 크루즈선 탑승자 중 일본인은 29명, 외국 국적자는 15명이다. 한국인 탑승자 14명 중에는 아직까지는 감염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는 전했다. 연령별로는 80대가 33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7명, 60대 2명, 50대 1명, 40대 이하 1명이다. 43명이 승객이고 승무원 1명이다. 가토 가쓰노부(加藤 勝彦) 후생노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령에 지병이 있는 탑

승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80세 이상 고령 탑승자는 약 200명으로 지병이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중이며,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의 하선은 14일 이후가 될 것이라고 후생성은 전했다. 한국인 탑승자 중에는 80세 이상 고령자는 없다. 다만, 8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 끝나고 검사 대상이 60~70대로 낮아지면 한국인 중 하선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밤 요코하마항 앞바다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약 3600명을 19일까지 선내 대기 시킨다는 방침이었다. 후생성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초기 하선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숙박시설에서 코로나19 잠복기간이 지날 때까지 생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극복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

광주시청에 장미꽃 판매대...공직자 헌혈 줄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민생경제 위축 등 후유증 극복을 도우려는 공직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오전 출근 시간에 맞춰 꽃 한 송이 나누기 행사를 했다. 시청 1층 로비에 꽃 판매대를 운영하고 직원들에게 마리 사둔 장미 1500송이를 나눠줬다. 시는 코로나19로 각급 학교 졸업식이 취소되면서 어려움에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조금이나마 돕자는 마음을 담았다. 광주시의회 앞에는 대한적십자사 헌혈 버스가 등장했다. 시청과 산하 기관 공직자, 시의회 관계자,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정중재 행정부시장 등 간부들이 가장 먼저 헌혈 행렬에 동참했다. 이용섭 시장도 헌혈행렬에 동참하려 했지만, 최근 복용하고 있는 약 때문에 다음

기회를 예약했다. 광주시는 통상 상하반기 한 차례씩 단체 헌혈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헌혈이 줄자 지난달 30~31일에 이어 2주 만에 '헌혈 버스'를 다시 요청했다. 울 들어 지난 12일까지 광주-전남 헌혈 참여 인원은 1만99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1436명)보다 1502명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후 헌혈 참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일선 병원에서 혈액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꽃 한 송이 사주기, 단체 헌혈이 공공 열여있는 화훼농가나 혈액 수급 상황을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사회 전체의 나눔 활동으로 확산한다면 각계 어려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3일 오전 광주시청 1층에서 광주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매출이 급감한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한 송이 사주기' 행사를 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

## 전남도, 예비 역학조사관 6명 추가 임명

조사관 12명으로 늘어...코로나19 감염 확산 대응

전남도는 13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려고 예비 역학조사관 6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도내에는 3명의 역학조사관이 근무하고 있지만, 유사시 인력 부족에 대비해 최근 민간병원 의사 3명을 역학조사관에 임명한다 이어 예비 역학조사관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로써 전남도가 확보한 역학조사관은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예비 역학조사관은 모두 6명으로 시군 보건소 공중보건과들이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기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투입된다. 투입대상 지역은 여수·나주·담

양·고흥·완도·신안이다. 전남도 역학조사반은 현재 3개 팀 23명으로 이뤄져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국 9명·감염병지원단 9명·도민안전실 5명이다. 전남도는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도 지정 접촉자 격리시설을 도농업기술원 내부 연수 시설을 지정했다. 이곳은 1인 1실이 가능하고 독립 샤워실·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유사시 의사 1명·간호사 8명·행정지원인력 1명으로 이뤄진 의료지원단이 파견돼 근무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6월부터 날씨예보 10분마다 제공

폭염특보 때 습도 반영...미세먼지 저감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올해 6월부터는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된 날씨 예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체감하는 더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폭염 특보를 내릴 때 최고기온 외에 습도도 고려되고 수자원 확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강우 실험도 진행된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기상청은 더 정확한 날씨 예보 서비스를 위해 현재 홈페이지 등에서 최대 6시간간

지 1시간마다 제공되는 '초단기 예보' 서비스 간격을 6월부터 10분으로 줄인다.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반영해 동(洞) 단위로 내보내는 동네 예보 제공 간격은 11월부터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전문도 기상청 예보국장은 "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확한 예보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자주 나오는 예보를 요구했다"며 "10분 단위 예보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지만 계속해서 모델을 개발하면 정확도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점차 거세지는 폭염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올해 6월께 폭염 특보 기준을 체감 기준, 습도 등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폭염 특보는 최고 기온만 고려 요인이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에서는 기후 특성, 생활권 등을 고려해 5월께 구역을 4개로 세분화해 체감형 특보 체계를 마련한다. 날씨 때문에 빚어질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폭염, 한파에만 제공되던 '영향 예보'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산림청, 행정안전부와 함께 폭염·호우 재해 영향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지진 정보도 개편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에서 지진파 도착 시각, 지역별 진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

적인 국가 지진 관측망을 확충하기 위해 '2020~2024년 지진·지진 해일·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7월 수립한다. 기상청은 또 대형 산불이나 태풍이 우려될 때 무인항공기(드론)를 탑재한 기상 관측 차량을 재해 발생 2시간 이내에 현장으로 보내 상세 관측·예측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호주 산불과 같이 외국이나 먼바다에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면 '천리안위성 2A호'를 활용해 2분 간격으로 현장 날씨를 특별 감시한다.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주민등록 등초본 스마트폰으로 받으세요”

증명서 13종 전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 등초본만 있었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가 12종이 추가돼 총 13종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증명서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병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건

축물대장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예방접종증명서(새로 포함됐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이곳으로 내려 받으면 된다.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 기능이 있고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민간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 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한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도록 책임지도하며 무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자 고수의 볼.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2월 28일  
-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 수 강 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0. 3. 3(화) 오후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 2층)  
• 수강료: 풍수+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0. 2. 25(화) 오후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